

“고객에 색다른 경험을”...참신함 무장한 농심

축구팀 응원 ‘새우깡 굿즈’ 선보여 ‘파스타랑·안성탕면 팝업展’ 성황
양봉농가 지원 등 상생 경영 실천 멘토링 통한 젊은 농부 육성 나서

농심이 다채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식품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새우깡과 함께하는 축구 응원 캠페인, 꿀파배기를 통한 국내 양봉농가 지원, 파스타랑·안성탕면 팝업전시회 등 자사의 특징을 담아 고객이 참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스낵과 함께 축구 응원 및 양봉농가 지원
먼저 새우깡이 스포츠 패션브랜드 골 스튜디오와 함께 대한민국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일환으로 가상 축구팀 ‘새우깡FC 1971’을 모티브로 한 굿즈를 내놓았다. 유니폼, 깃발, 머플러, 스티커 등으로 구성했으며, 패션 온라인 몰 무신사에서 판매한다.

또 월드컵 시즌을 맞아 12월 3일까지 농심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축구는 깡이다’ 이벤트를 연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응모하면 응원 굿즈 키트를 선물로 준다. 회사 측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라며 “새우깡과 함께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또 꿀파배기의 핵심 재료인 아카시아 꿀을 재배하는 국내 양봉농가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농심은 꿀파배기 생산에 국산 아카시아꿀을 사용해 매년 약 160톤의 국산 아카시아꿀을 구매해왔



농심이 다채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식품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함께하는 양봉’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회장, 이병학 농심 대표,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왼쪽 사진 왼쪽부터), 대형 안성탕면 패키지로 꾸민 ‘파스타랑·안성탕면 팝업전시회’ ‘새우깡FC 1971’ 축구 굿즈(오른쪽 위부터).



사진제공 : 농심

다. 꿀파배기 1봉지(90g)에는 아카시아 꿀 약 3g이 들어간다.

최근 서울 동작구 소재 본사에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양봉농협과 함께 양봉농가와 상생협력을 위한 ‘함께하는 양봉’ 협약식을 열었다. 양봉농가의 벌꿀 수확량 감소와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심은 양봉농가와 아카시아꿀 계약생산을 체결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벌꿀 소비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벌통 내부의 습도와 온도 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벌통 구입지원과 꿀벌 질병 진단키트를 보급하고, 한국양봉농협에서 추천하는 우수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젊은 농부 육성에도 힘쓴다. 회사 측은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넘

어 국내 농가의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상생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파스타랑·안성탕면 팝업전시회’ 개최
최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유니자인빌딩에서 성황리에 열린 ‘파스타랑·안성탕면 팝업전시회’도 눈길을 끌었다. ‘파스타랑·안성탕면 한글잔치’라는 주제로, 라면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심의 과거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콘셉트로 꾸몄다. 특히 유니자인빌딩 전체를 대형 안성탕면 패키지처럼 꾸며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인근을 오가는 2030 MZ세대의 주목을 받았다.

‘농심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는 안성탕면관에서는 농심의 장수제품인 안

성탕면을 주제로 유니디자인과 개발한 한글 서체 ‘안성탕면체’를 활용한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했고, 안성탕면체를 이용해 원하는 글자를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했다. 또 농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심 히스토리관’도 운영했다.

1층은 ‘농심의 미래’를 테마로, 최근 론칭한 건면 신제품 파스타랑을 콘셉트로 꾸몄다. 포토존과 인피니티 미러 등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디자인했으며, 사전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파스타랑 무료 시식 기회도 제공했다. 회사 측은 “2030 MZ세대 고객과 좀 더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이번 팝업전시회를 기획했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제공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동아오츠카 ‘블랙빈티’ ‘이카리아’ 비건 인증



동아오츠카의 검은콩차 ‘블랙빈티’와 그릭커피 ‘이카리아’가 비건 인증(사진)을 획득했다. 비건 인증은 동물성 원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과 연구가 없는 등 까다롭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획득할 수 있다. 회사 측은 “2030 MZ세대를 중심으로 비건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즐겁게 건강관리를 하는 헬스플레저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겨냥했다”며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동아오츠카의 기업 이념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고 했다.

이랜드 더카페, 아침햇살 협업 신메뉴 2종 선택



이랜드 ‘더카페’가 웅진식품 ‘아침햇살’과 협업한 신메뉴를 선보였다. 우유와 함께 블렌딩하고 우리쌀로 든든함을 더한 ‘아침햇살라떼’와 아침 햇살의 고소함과 부드러움에 흑당의 달달함을 더한 우리 쌀 스무디 ‘아침햇살스노우’로 구성했다. 회사 측은 “웅진식품과 6개월간 협업해 총 20회가 넘는 조율 과정을 거쳐, 고품질의 신메뉴를 내놓았다”고 했다.

메디큐브 에이지알, 프림로즈 핑크 에디션 출시



에이피알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이 ‘프림로즈 핑크’ 에디션(사진)을 내놓았다. 기존 제품인 ‘더마EMS’, ‘유레라답샷’, ‘에어샷ATS’에 차별화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강조된 프림로즈 핑크를 입혔다. 일반 분홍색에 비해 다운톤으로, 은색을 띄는 뷰티 디바이스의 전극 부분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흙 톤 뷰티 디바이스로서 에이지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특유의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화장대의 퀄리티를 올려줄 아심작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김지현 대표 “2026년까지 국내 매출 8000억 달성”

〈휠라코리아〉

2023 봄·여름 시즌 컨벤션 참석
브랜드 프리미엄화 등 과제 제시

휠라코리아가 최근 서울 강동구 소재 본사에서 ‘2023 봄·여름 시즌 컨벤션’을 열고, 2026년까지 국내 매출 8000억 원 돌파를 목표로 제시했다.

2월 발표한 글로벌 5개년 중장기 전략 ‘위닝 투게더’에 따른 국내 사업 운영 전략과 방향성을 유통채널 바이어와 대리점주 등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2030 고객 공략,

메가 히트 아이템 개발,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포지션 전환 등을 꼽았다.

먼저 테니스를 중심으로 앰배서더와 인플루언서를 연계해 2030 고객과 소통을 강화한다.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 선택·집중 전략에 따라 스타일 수를 축소하고, 반응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메가 히트 아이템을 만든다.

아울러 제품 전반 퀄리티를 높이고, 국내 시장에 글로벌 상품 라인을 확대 도입한다. 매장 인테리어 역시 신규 매뉴얼을 개발 중이며,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

다. 내년 중 핵심상권에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1월 공식 자사몰 리뉴얼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을 통한 휠라의 핵심가치와 철학을 의미하는 ‘휠라소피’라는 콘셉트 아래, ‘스포츠 헤리티지 존’, ‘이탈리안 프리미엄 존’, ‘이노베이션 존’, ‘월드 와이드 휠라 존’ 등 핵심가치에 따른 4개의 테마존을 구성해 2023년 봄·여름 시즌 주요 제품군을 소개했다.

김지현 휠라코리아 대표는 “내년 봄·여름 시즌부터 브랜드 고유 자산에 혁신을



‘2023 봄·여름 시즌 컨벤션’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지현 휠라코리아 대표. 사진제공 : 휠라코리아

더해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변화의 방향성에 많은 공감과 기대가 있는 만큼, 강화된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브랜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30일(수) 음력: 11월 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책증의 취특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다. 건강에 신경을 기울이고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의 상황에서 자제하며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오늘은 움직이는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다. 뜻하지 않는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대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오늘은 돼지파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하려거든 과감하게 실행하라.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니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가의 정신이 필요하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받는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욕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라. 일처리 과정에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심사된다. 오늘은 금전적 낭비가 따를 수 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노력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